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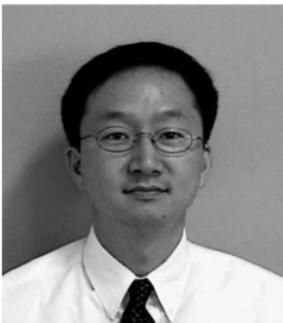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



발행인: 이준구 / 편집인: 김영식 / 편집: 석병훈, 서승희 (전화: 880-5433, FAX: 888-4454)
홈페이지: econ.snu.ac.kr / E-mail: nolbu89@snu.ac.kr

신임교수 인사말



기술 혁신과 경제학 방법론

장용성 (경제학부 부교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 소식지를 통해 인사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구 반대편과 소식을 주고받는 일이 이웃들과의 대화만큼이나 용이함에도 고국에 돌아오니 다시 만나는 이마다 반갑고 정겹습니다. 저는 현재 학부 및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 동문들께 인사를 드림과 아울러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이 경제학 연구 방법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려 합니다. 특히, 최근 거시경제학 및 사회과학 일반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경제학의 수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에 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회과학의 여왕이라 불리는 경제학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에 그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거치면서 현대 인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 혁신의 대표적 예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은 우리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학 방법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리적 장벽이 해소되어 국제적 공동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시시각각 수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양질의 데이터에 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과거 연구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던 자료들이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부족이 경제 이론의 발전을 제한한 시절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넘쳐나는 정보를 소화하기 힘들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필두로 한 수치 계산방법의 혁신 또한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방법론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수학의 힘을 빌려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듯,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제 경제를 가상의 복잡한 모형의 동태적 균형을 컴퓨터를 이용해 수량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단순히 복잡한 문제의 해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 을 통한 policy experiment)을 통해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각종 정책(화폐 금융, 재정, 산업,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수립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슈퍼컴퓨터에서나 가능했던 방대한 규모의 모의실험이 오늘날에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제학자의 노트북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곧바로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되기도 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공동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컷(Edward Prescott)과 핀 키들랜드(Finn Kydland)도 수량적 기법을 최초로 경기변동 이론에 접합 시킨 그들의 공로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양질의 데이터 공급의 증가와 계산 방법의 혁신은 추상적 이론과 연역적 추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시킵니다. 어려운 계산이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상용화됨으로써, 이론의 회소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통계학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주어져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여과시킴으로써 우리의 현실 인식을 증진 시키기에, 사회과학자는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관찰한다고 말하는가 봅니다. 아무리 계산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현실경제를 그대로 컴퓨터에 옮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의실험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뛰어난 경제학적 직관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직관을 개발하는 훈련과 현실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그랬듯이 컴퓨터를 이용한 수량적 분석이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관한 신비를 한 꺼풀씩 벗겨 주어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바로 잡습니다

경제학부 소식지 제12호 신임교수 인사말(김영식, 경제정책이론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의 내용 중 소제목 <신용카드회사 및 가계부채> 제하의 두 문단은 김홍범(“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협력 및 견제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2003)의 일부 내용을 전제한 것으로서, 원전에 대한 인용과 언급이 없었음을 바로 잡습니다.



학부행사

1. 교무

1)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일자: 2005. 2. 25(금)

■학위수여자

박사: 김창근, 김태형, 하봉찬

석사: 양유형 외 24명

학사: 김대형 외 134명

2. 학생

1) 2005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생 선정 결과

■학부 869명 중 184명 수혜

■대학원 159명 중 66명 수혜

2) 2005학년도 1학기 향상장학회 장학금 지급

■장학생: 경제학부 20명

학 번	성 명	금 액 (단위:원)
2001-10796	오진훈	1,788,000
2003-10432	김세훈	1,788,000
2003-10435	김신영	1,788,000
2003-10465	김준영	1,788,000
2003-10499	노승민	1,788,000
2003-10670	이수련	1,788,000
2003-10740	장윤정	1,788,000
2003-10777	조성태	1,788,000
2000-10723	민병준	1,755,000
2000-10864	최창규	1,755,000
2001-10828	이의정	1,755,000

학 번	성 명	금 액 (단위:원)
2002-10420	김서윤	1,755,000
2002-10426	김성수	1,755,000
2002-10427	김성은	1,755,000
2002-10459	김은진	1,755,000
2002-10507	라미령	1,755,000
2002-10513	박민경	1,755,000
2002-10612	윤선영	1,755,000
2002-10701	임진호	1,755,000
2002-10755	조영우	1,755,000
합 계		35,364,000

3. 입시

1) 2005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

■일자: 2004. 10. 30(토)

■석사과정 66명 합격(연구자과정 40명,
전문가과정 22명)

■박사과정 16명 합격

4. 행사

1) 2004년 김태성기념 논문상 시상식

■일자: 2005. 3. 15(화)

■수상자: 고영우(학부 4학년)

■논문제목: 공교육 평준화에 의한 사교육
시장 형성

2) 경제학부 티셔츠 배포

■기간: 2005. 5. 16(월) - 6. 30(금)

■대상: 경제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Happiness Optimization

이 수 범 (경제학과 81학번)
네모파트너즈 대표파트너 / CEO

지난 주말 한 Seminar에 참석 후 몇 분의 참석자들과 저녁을 겸한 조출한 술자리를 함께 할 기회를 가졌다. 공교롭게도 모든 분들이 서울대 경제학부와 깊은 연관이 있었기에 허물없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많은 얘기 중에 ‘경제학을 좀 했다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강남에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은 주거 수단임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에 동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가진 재산을 통한 이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최근 집값 폭등과 더불어 주변에 새삼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주부들이 등장하고 있다. 남편과의 투쟁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의지를 관철한 용감한 여성들이다. 주거 지역 및 집의 선택은 철저히 부인에게 맡기라는 얘기가 오간다. 집은 남편을 위한 곳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부인들의 공간이기에, 부인이 선택한 집이 투자가치 측면에서는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강남에 소재한 집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서 그 집값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누군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제학도들은 이에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며, 최소한 이를 받아들여 속세 말로 ‘질러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학박사인 동문 한 분이 유명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회사의 (공공연한) 기밀 사항 중의 하나가 ‘사장이 신도시 **에 산다’는 사실이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장은 타워팰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치동 어디쯤에는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주변 경제학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종종 ‘집을 사고 파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문제는 부인에게 맡겨 두고 나는 좀 더 큰 일, 예를 들면 달나라의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하거나 다음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농담들을 주고 받는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노력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학부 동문들이 얼마나 risk-averse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이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은 분석과 논리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동문 대부분이 큰 문제없이 살고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식의 얘기는 많이 듣지 못했다. 새로운 영역에 먼저 진출하여 앞서가는 사람들 중 동문의 비중은 예상 외로 적어 보인다. 남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움직이는 것이 우리 동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아마도 기존 조직에서 웬만큼은 인정 받고 잘 나가기 때문 이리라 생각된다.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든 네트워크가 좋아서든 많은 우리 동문들이 일정 수준까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학교나 다른 과 출신들은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등등의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 경제학부 출신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느껴진다. 세상살이는 분석보다는 감각과 노력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은 사물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주지만 반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가능성보다는 어려움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따라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지 않는 단순한 분석가는 리스크만을 인식하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경제학을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인 분석력과 논리가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뛰어난 분석력과 논리로 뭉친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높은 목표를 성취하려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리스크를 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공은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되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함에 만족하며 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무언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대상이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다. 하지만 도전할 용기도 있는지 묻고 싶다.

‘ $H(\text{Happiness})=R(\text{Result})-E(\text{Expectation})$ ’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행복지수 H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지수 R을 높임과 동시에 기대수준 E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E를 낮추어 H를 높이는 자세를 가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아픈 경험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마 그 때 즈음이면 H의 Maximization보다는 주변 환경을 감안한 Optimal H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H의 극대화를 위해 R을 최대화하려면 이는 반드시 risk taking을 수반할 것이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뛰어난 논리와 분석력을 갖추도록 해 준 경제학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 risk-averse한 집단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라도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보자.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워 움크리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할 뿐이다. 혹, 우리가 갈구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그 과정은

너무도 즐겁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최소한 남들의 성공 얘기를 들으며 배 아파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어야 한다.

경제학부 동문들의 역량은 매우 출중해 보이는 반면, 그 활동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은가 싶다. 학교, 연구소와 관계에 지나칠 정도로 몰려 있지 않은가 싶다. 내 동기 약 170명 중 대학이나 연구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족히 50명은 넘어 보이며 고시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 친구가 20명 정도는 되니 그 편중된 정도는 가히 알 만하다. 공부를 좋아하고 시험을 잘 보는 집단 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능력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이지만, 이 또한 불안한 미래 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성향과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과거 선배들이 지나간 검증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철저히 risk를 피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마 내가 학계에 남았다면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에 는 우리 동문들이 너무 좁은 영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학 졸업 후 민간기업체에 들어 갔다가 곧 진로를 변경하는 선후배들을 많이 목격했다. 대부분의 이유가 쉽게 적응이 안 되거나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서다.

나의 판단으로는 사회 신입생으로서 너무 기대수준이 높았던 것 같다. 경제학을 배우고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사회에서 특히 민간기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경영학을 한 동료에

비하면 적응도 빠르지 못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 뛰어난 분석력 및 논리적인 사고가 그 기반이 아닌가 싶다.

경제학부 후배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좀 더 다양한 세상에 눈을 돌려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이 가는 안전한 길을 함께 가는 것보다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도 후회스럽지만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먼 훗날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믿어진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이 굴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기 보다는 먼 훗날을 준비하는 안목을 가지기를 후배들에게 바란다.



朝三暮四, 朝四暮三?

이진영 (경제학부 박사과정)

중국 송나라 때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 개, 저녁에 4 개로 제한하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아침에 3 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 견뎌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 개를 주고 저녁에 3 개를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좋아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를 읽고 어린 시절 나는 이 원숭이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지금의 나는 이 원숭이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통적인 인식들이 도전 받고 있다. 시험대에 오른 전통적인 인식 중 하나를 살펴보자.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개인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선호를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해 왔다. 그런데 근래의 여러 실험과 논문들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에 관한 일관성(time consistency)이 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오늘 최적이라고 생각한 내일의 선택을 내일이 되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일 년 후에 10 달러 받는 것과 일 년 하루 후에 11 달러를 받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개 일 년 하루 후에 11 달러를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10 달러를 받을 권리와 내일 11 달러를 받을 권리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10 달러 받을 권리를 선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선호의 역전(preference reversal)이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러한 단기 선호와 장기 선호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시점 변화에 따른 선호의 역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시도로 Elster(1979)와 Laibson (1997)은 기존의 전통적인 효용함수에서 미래시점에 발생하는 효용(u_t)들에 대해서 지수함수 형태(δ^t)로 할인하는 것 이외에 미래 시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할인계수(β)를 도입하였다.¹⁾ 이러한 이론적인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경제적 선택 시 직접적으로 뇌기능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한 논문 중 2004년 12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Separate Neural Systems Value Immediate and Delayed Monetary Rewards"**를 요약해서 살펴보자.

이 논문은 인간의 단기와 장기에서의 선호 역전 현상이 '구분 가능한 신경계의 활성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에서 인내력이 부족한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에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대뇌변연계²⁾(limbic system) 때문에, 장기에서의 인내력은 추상적인 보상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전액골 앞측면 피질(lateral prefrontal cortex)과 그 유관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은 fMRI 를

이용하여 피실험자들이 장기와 단기의 선택을 할 때 각각의 뇌 사진을 촬영하고 뇌 신호를 분석하여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실험에서 시간의 즉시성(immediacy)에 반응하는 뇌 영역을 ' β 영역', 모든 의사결정 시 반응하는 부분을 ' δ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논문 저자들의 기대와 같이 β 영역은 시간의 즉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즉 현재에서 더 가까운 시점에서의 선택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고, 이 영역은 대뇌 변연계와 관련된 부문이었다. 하지만 δ 영역은 시간의 즉시성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δ 영역은 이성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선택이 어려워질수록 반응의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선호의 역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β 영역과 δ 영역간의 상대적 활성화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즉 이성영역이 감성영역보다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결정을 할 것이고, 반대로 감성영역이 보다 활성화되면 감성에 치우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먼 시점에서의 결정에서는 δ 영역이

β 영역보다 활성화되고, 매우 가까운 시점에서의 결정에서는 β 영역이 δ 영역보다 활성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보상을 받는 시점의 근접성 (time proximity)을 통해 선호의 역전현상을 설명하였지만, β 영역이 감성영역이므로 선호 역전 현상은 감성을 지배하는 시각, 후각, 촉각 등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이성이 발달되어 수십 년 차이의 각기 다른 시점에 보상을 주는 선택권들을 평가할 수 있지만, 매우 진보된 영장류들조차도 몇 분 이상의 차이를 가진 선택권을 평가하지 못하고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응에 의해 진화된 '본능'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인 '이성'간의 경쟁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경제적 행동에 관한 신경 및 인지 과학적 연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 동안 가설로만 받아들여졌던 인간의 경제적 행동방식이 검증되어 앞으로의 경제학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을 부탁 받았을 때 처음엔 일주일간의 집필 계획을 하였으나, 이성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 계속 글쓰기를 미루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나의 효용함수는 정말로 시간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도 보다 이성적인 인간으로 진화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beta-delta preference by Phelps and Pollack(1968):

$$U_0(u_0, u_1, \dots, u_T) \equiv u_0 + \beta \sum_{t=1}^T \delta^t u_t,$$

$0 < \beta \leq 1, \delta \leq 1$, 반면 전통적인 효용함수는

$$U_0(u_0, u_1, \dots, u_T) \equiv u_0 + \sum_{t=1}^T \delta^t u_t \text{ 임.}$$





질문 던지기

홍 지 희 (경제학부 4학년)

지난달부터 학과 사무실에서는 경제학부 티셔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찬 이성, 더운 가슴 (Cool Head, Warm Heart)"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이 옷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실제로 학교 곳곳에서 입고 다니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이 광역화 제도가 도입되어 2 학년이 되어서야 경제학부에 배정된 저에게 이는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대학생활은 이전에 막연히 가졌던 시각과는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또한 지금 노력해왔다는 안도감 보다는 제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 이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강의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과 모델을 통해서 그 이론이 제기되었을 당시 문제 시 되었던 점들이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학과 같은 수업에서 배우는 실용적인 도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회를 보는 시각을 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결코 대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이 주가 되고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업 이외에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스스로 의문점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관심이 학문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나름대로 꼼꼼이 고민해 본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질문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에게 더욱 유익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다 찾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럴 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주위의 교수님을 비롯한 친구, 선후배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저명한 교수님과 우수한 친구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혼자 끙끙대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어색해 했고 심지어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자존심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서 자신의 지식으로 체화하고, 다른 이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올 때 정확한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아직 인적사항을 보내주시지 않은 동문이나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보내 주시면 금년 11월로 발간 예정된 제14호의 동창 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Fax, E-mail, 우편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E-mail로 보내실 때는 경제학부 홈페이지(<http://econ.snu.ac.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면 경제학부 소식지를 on-line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명		입학년도, 학과	
주소			
직장명		직위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알리고 싶은 소식 :

(동문 여러분 개인의 신상 변화 뿐만 아니라 동기회 소식이나 모임 등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51-742 경제학부 소식지 담당자 앞



nolbu89@snu.ac.kr